

# 얼음 땀 줌으로 무엇을 할까?

(‘시간아 멈춰라! 얼음 땀 줌’을 읽고)

( )학년 ( )반 이름( )

※ 혁수는 고물 자판기에서 얼음 땀 줌을 받게 되었어요. 그 줌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혁수와 비교해서 적어 봅시다.

	혁수는	나라면
얼음 땀 줌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 혁수와 대화를 나눠 봅시다

(‘시간아 멈춰라! 얼음 땀 좀’을 읽고)

( )학년 ( )반 이름( )

※ 모든 일을 겪고 난 혁수와 대화를 나눠 봅시다. 여러분이 혁수가 되어 대답해주세요.

혁수야, 고물 자판기에서 받은 종에 시간을 5분 멈추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	
마트에서 시간을 멈추고 슈퍼건을 가지고 나올 때 기분이 어땠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다음 장난감을 가지고 나왔잖아. 왜 그랬어?	
종이 고장 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	
종을 부수고 세상이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한 이유는 뭐야?	
솔직히 말한 덕분에 요즘 집안일 돕느라 힘들지? 그런데 기분이 좋아 보이네? 왜 그런 것 같아?	

# 가장 먹음직스럽게 (‘먹고 싶어, 보물 식빵’을 읽고)

( )학년 ( )반 이름( )

※ 호준이는 빵을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엄마는 살찐다고 못 먹게 하시죠. 그럴수록 먹고 싶은 마음은 더욱 커져 가요. 그런데 고물 자판기에서 얻은 건빵이 매일 다른 종류의 맛있는 식빵으로 변하는 거예요! 호준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장 맛있을 것 같은 식빵을 상상하여 그려 보세요.

식빵 이름		들어 있는 재료	

# 부드럽고 달콤한 유혹은 (‘먹고 싶어, 보물 식빵’을 읽고)

( )학년 ( )반 이름( )

※ 유혹은 이 책의 식빵처럼 부드럽고 친절하게 다가와요. 하지만 발목을 잡는 순간 무서운 괴물이 되어 나를 놓아 주지 않는답니다. 식빵 괴물에게서 벗어난 호준이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호준이가 되어 대답해 주세요.

<p>호준아, 고물 재판기에서 나온 건빵이 매일매일 맛있는 식빵으로 변하는 걸 보니 어땠어?</p>	
<p>환상적인 맛의 고마운 식빵! 그런데 언제부터 식빵에게서 도망치고 싶어졌어?</p>	
<p>건빵을 받은 다른 친구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어?</p>	

※ 빵을 못 먹게 하고 하기 싫은 운동을 시키는 엄마가 너무 미운 적도 있었어요. 이제 호준이가 엄마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호준이의 편지를 완성해 주세요.

엄마, 저 호준이에요.

.....

.....

.....

.....

.....

# 고마운 할머니께

(‘포근포근 배냇저고리’를 읽고)

( )학년 ( )반 이름( )

※ 배냇저고리를 입은 지효를 찾아온 삼신할머니는 지효의 아픈 이도 보살펴 주시고 마음도 보살펴 주셨어요.  
지효를 보면서 할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 할 일을 마친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지효는 종종 할머니 생각을 해요. 지효가 되어 할머니께 편지를 써 봅시다.




A large, light blue area with a scalloped border, containing several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letter to the grandmother.

# 용기, 용기, 용기

(다 읽고)

( )학년 ( )반 이름( )

※ 이 책에 실린 세 작품의 주인공들은 곤란한 상황에 빠졌지만 결국은 벗어날 수 있었어요.  
결국 마지막에 용기를 냈기 때문이죠. 세 아이의 용기에 대해 말해 봅시다.

혁수의 용기 	
호준이의 용기 	
지효의 용기 	

※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필요한 용기는 어떤 것인가요? 이 제목으로 간단한 글을 써 봅시다.

제목 : 나에게 필요한 용기

---

---

---

---

---

---

---

---

---

---

# 세 주인공의 만남 (다 읽고)

( )학년 ( )반 이름( )

※ 혁수, 호준, 지효가 만났어요. 어떤 대화를 나눌지 상상해 볼까요? 빈 곳을 채워 대화를 완성해 봅시다.



혁수야! 네가 고물 자판기를 처음 발견한 아이구나. 네가 거기 넣은 건빵을 내가 받아서 식빵괴물을 만나게 되었지! 나는 거기에 엄마가 버리라던 배냇저고리를 넣었고. 지효야. 넌 배냇저고리를 받았을 때 어땠어?



우리 셋은 이렇게 줄줄이 연결되었구나! 종-건빵-배냇저고리로 말이야. 그런데 지효가 넣은 이어폰은 어떤 아이가 갖게 될까?



우린 고물 자판기 덕분에 참 재미있는 일들을 겪은 것 같아. 그리고 그 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나는 이제 힘들거나 아플 때 눈치 많이 안 보고 어른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 너희들은 어때?



# 얼음 땀 증으로 무엇을 할까?

(‘시간아 멈춰라! 얼음 땀 증’을 읽고)

( )학년 ( )반 이름( )

※ 혁수는 고물 자판기에서 얼음 땀 증을 받게 되었어요. 그 증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사용할까요? 혁수와 비교해서 적어 봅시다.

	혁수는	나라면
얼음 땀 증을 어떻게 사용했나요?	마트에서 시간을 멈춰 놓고 갖고 싶은 슈퍼건과 장난감들을 들고 나왔다.	생략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슈퍼건을 너무 갖고 싶은데 엄마는 절대 사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생략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계속 장난감을 훔치던 어느 날 증을 떨어뜨렸고, 종이 고장 나는 바람에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혁수가 증의 시간판을 망치로 깨 버리자 비로소 세상이 다시 돌아갔고, 혁수는 엄마에게 모든 일을 고백하고 마트에 장난감값을 물어주었다.	생략



# 혁수와 대화를 나눠 봅시다

(‘시간아 멈춰라! 얼음 땀 좀’을 읽고)

( )학년 ( )반 이름( )

※ 모든 일을 겪고 난 혁수와 대화를 나눠 봅시다. 여러분이 혁수가 되어 대답해주세요.

<p>혁수야, 곤물 자판기에서 받은 종에 시간을 5분 멈추는 기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p>	<p>처음엔 놀랐는데, 너무 신났어. 내가 5분 동안 투명 인간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걸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슈퍼건 생각을 하니깐 막 흥분됐어!</p>
<p>마트에서 시간을 멈추고 슈퍼건을 가지고 나올 때 기분이 어땠어?</p>	<p>시간이 멈춘 걸 알면서도 너무 떨렸어. 누가 쫓아올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시간이 풀려서 사람들이 날 보게 될까 봐 너무 긴장됐어.</p>
<p>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다음 장난감을 가지고 나왔잖아. 왜 그랬어?</p>	<p>처음에는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 그리고 하나를 가지니까 그다음 것도 갖고 싶은 욕심이 계속 생기더라.</p>
<p>종이 고장 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p>	<p>으악! 세상이 끝난 느낌이었어. 지구가 멸망하고 나만 남은 느낌? 너무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어.</p>
<p>종을 부수고 세상이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한 이유는 뭐야?</p>	<p>아까 놀랐을 때, 내가 얼마나 잘못된 욕심을 부렸는지 깨달았어. 이 잘못을 책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불안하게 살아야 할 것만 같았어.</p>
<p>솔직히 말한 덕분에 요즘 집안일 돕느라 힘들지? 그런데 기분이 좋아 보이네? 왜 그런 것 같아?</p>	<p>응. 솔직히 예전보다 바빠졌지. 근데 이상하게 기분은 상쾌해. 내가 노력해서 얻어야 불안하지도 않고 마음이 뿌듯한 것 같아.</p>

# 가장 먹음직스럽게 (‘먹고 싶어, 보물 식빵’을 읽고)

( )학년 ( )반 이름( )

※ 호준이는 빵을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엄마는 살찐다고 못 먹게 하시죠. 그럴수록 먹고 싶은 마음은 더욱 커져 가요. 그런데 고물 자판기에서 얻은 건빵이 매일 다른 종류의 맛있는 식빵으로 변하는 거예요! 호준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가장 맛있을 것 같은 식빵을 상상하여 그려 보세요.

식빵 이름		들어 있는 재료	
생략			

# 부드럽고 달콤한 유혹은 (‘먹고 싶어, 보물 식빵’을 읽고)

( )학년 ( )반 이름( )

※ 유혹은 이 책의 식빵처럼 부드럽고 친절하게 다가와요. 하지만 발목을 잡는 순간 무서운 괴물이 되어 나를 놓아 주지 않는답니다. 식빵 괴물에게서 벗어난 호준이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호준이가 되어 대답해 주세요.

<p>호준아, 고물 재판기에서 나온 건빵이 매일매일 맛있는 식빵으로 변하는 걸 보니 어땠어?</p>	<p>너무 신났고, 황홀했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빵을 엄마가 못 먹게 해서 날마다 빵 생각이 간절했는데, 날마다 바뀌는 빵들이 너무 맛있는 거야. 정말 그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p>
<p>환상적인 맛의 고마운 식빵! 그런데 언제부터 식빵에게서 도망치고 싶어졌어?</p>	<p>맛있는 식빵에 빠져서 정말 행복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살도 너무 찌고 내 모습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특히 식빵이 자기가 엄마라고 할 때 소름이 짹 끼쳤어. 나를 붙잡고 놔주지 않으려고 할 때 정말 큰일 났다는 걸 깨달았어.</p>
<p>건빵을 받은 다른 친구가 있다면 어떤 말을 해 주고 싶어?</p>	<p>아무리 맛있는 빵으로 변해도 조금만 먹어. 특히 빵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돼. 근데, 아예 처음부터 먹지 않는 게 가장 좋아. 한 번 먹으면 참기가 어려워지거든.</p>

※ 빵을 못 먹게 하고 하기 싫은 운동을 시키는 엄마가 너무 미운 적도 있었어요. 이제 호준이가 엄마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호준이의 편지를 완성해 주세요.

엄마, 저 호준이에요.

.....

.....

생략

.....

.....

.....

# 고마운 할머니께

(‘포근포근 배냇저고리’를 읽고)

( )학년 ( )반 이름( )

※ 배냇저고리를 입은 지효를 찾아온 삼신할머니는 지효의 아픈 이도 보살펴 주시고 마음도 보살펴 주셨어요.  
지효를 보면서 할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시)

에고 찢찢.... 어린 것이 눈치 보고 살면서 마음고생이 심하구먼. 이가 저렇게 아픈데도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내가 따뜻하게 안아 주고 아픈 곳도 만져 줘야겠다. 아이가 마음이 단단해져야 눈치 안 보고 용기 내서 말할 수 있을 텐데...

※ 할 일을 마친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지효는 종종 할머니 생각을 해요. 지효가 되어 할머니께 편지를 써 봅시다.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a light blue scalloped border and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생략

# 용기, 용기, 용기

(다 읽고)

( )학년 ( )반 이름( )

※ 이 책에 실린 세 작품의 주인공들은 곤란한 상황에 빠졌지만 결국은 벗어날 수 있었어요.  
결국 마지막에 용기를 냈기 때문이죠. 세 아이의 용기에 대해 말해 봅시다.

<p>혁수의 용기</p> 	<p>사람들이 모르는 시간(시간이 멈췄던 때)에 저질렀던 잘못을 고백하고 책임지는 용기</p>
<p>호준이의 용기</p> 	<p>식빵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빵을 속이고 뛰쳐나올 수 있는 용기</p>
<p>지효의 용기</p> 	<p>이모에게 치과에 함께 가 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p>

※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필요한 용기는 어떤 것인가요? 이 제목으로 간단한 글을 써 봅시다.

**제목 : 나에게 필요한 용기**

.....

.....

.....

.....

생략

.....

.....

.....

# 세 주인공의 만남 (다 읽고)

( )학년 ( )반 이름( )

※ 혁수, 호준, 지효가 만났어요. 어떤 대화를 나눌지 상상해 볼까요? 빈 곳을 채워 대화를 완성해 봅시다.



혁수야! 네가 고물 자판기를 처음 발견한 아이구나. 네가 거기 넣은 건빵을 내가 받아서 식빵괴물을 만나게 되었지! 나는 거기에 엄마가 버리라던 배냇저고리를 넣었고. 지효야. 넌 배냇저고리를 받았을 때 어땠어?



배냇저고리는 갓난아기들이 입는 건데 이걸 왜 나한테 줬지? 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입어 봤더니 부드럽고 편안해서 좋더라고. 그리고 그걸 입은 덕분에 삼신할머니가 나한테 오시게 됐어.



우리 셋은 이렇게 줄줄이 연결되었구나! 종-건빵-배냇저고리로 말이야. 그런데 지효가 넣은 이어폰은 어떤 아이가 갖게 될까?



생략



우리 고물 자판기 덕분에 참 재미있는 일들을 겪은 것 같아. 그리고 그 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나는 이제 힘들거나 아플 때 눈치 많이 안 보고 어른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 너희들은 어때?



나는 이제 책임지는 게 뭔지 알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얻고 싶은 게 있으면 노력해서 정당하게 얻어야 한다는 것도. 그래서 조금 더 힘들고 바빠지기는 했는데, 그게 꼭 나쁘진 않더라고. 기분이 더 좋아졌어. 내가 괜찮은 아이인 것 같고, 왠지 부듯해.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긴 것 같아. 빵을 먹고 싶을 때랑 운동하기 싫을 때 전보다는 참을 수 있게 되었어. 엄마가 만들어 준 빵은 괴물식빵처럼 환상적으로 맛있지는 않지만 먹을 만해. 그리고 운동도 계속 하니깐 조금씩 쉬워지고 있어.